

한부모가족 담론의 균열과 변형된 정상가족 신화로의 포섭
-KBS1 다큐 공감 <아이가 행복입니다>의 서사분석을 중심으로-
Disintegration of Discourse in Single-parent Family and its Persuasion in the
Modified Myth of Normal Family
-Focusing on Narrative Analysis of KBS Documentary 'Gong-gam' <Child is
happiness>-

김환희*, 고병진**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Hwan-Hee Kim(hani1227@ewhain.net)*, Byoung-Jin Goh(byoungjin@ewhain.net)**

요약

이 연구는 한부모가족 담론이 TV 다큐멘터리에서 재현되는 양상을 확인한다. 정상가족 신화가 한계를 드러내는 현 상황에서, 다양한 분석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싱글대디와 미혼모 이야기를 동시에 다룬 KBS1의 다큐 공감 <아이가 행복입니다> (2015)의 서사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싱글대디와 미혼모는 공통적으로 '결핍된 상황'을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싱글대디는 어머니의 역할까지 모두 수행하는 반면, 미혼모는 어머니의 역할조차 완수하지 못하는 비대칭적 묘사가 두드러졌다. 또한, 다큐멘터리의 서사는 결손가족과 정상가족을 대비시키고 고정된 성역할을 재생산하며, 해당 사안을 개인의 영역으로 소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묘사는 한부모가족을 변형된 정상가족 신화로 편입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새로운 담론의 부재에서 오는 근본적인 문제인바, 중요한 것은 충돌하는 가족 담론을 재현하고 확장하는 미디어의 역할일 것이다.

■ **중심어** : | 한부모가족 | 정상가족 신화 | 싱글대디 | 미혼모 | TV 다큐멘터리 | 서사분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spect of the single-parent family discourse in the TV documentary.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normal family myth shows limitations in realit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ingle-parent family research based on various analysis subjects. For this purpose, the study conducted a narrative analysis of KBS1's documentary 'Gong-gam' <Child is Happiness> (2015), which deals with single daddy and single mom's stories at the same time. Single daddy and single mom are commonly described as overcoming the 'deprived situation'. However, asymmetric description was outstanding in that single daddy is depicted as performing the role of mother as well whereas the single mom appears to be unable to perform even the mother's role. Also, the narrative in the documentary compares broken family with normal family and reproduces the fixed sex role, which considers the problem an individual area. Such description can be seen as a process of persuading them into a "modified normal family myth". However, as the fundamental problem is the absence of new discourse, the role of the media to reproduce and expand the conflicting family discourses will be important.

■ **keyword** : | Single-parent Family | Normal Family Myth | Single Daddy | Single Mom | TV Documentary | Narrative Analysis |

* 본 연구는 2016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장학금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8년 06월 01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7월 31일

수정일자 : 2018년 07월 27일

교신저자 : 김환희, e-mail : hani1227@ewhain.net

I. 문제제기

오늘날 한국 사회의 한부모가족의 존재는 가족 해체나 위기 담론과 맞물려, 이제는 다소 일상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국내 한부모가구 수는 2013년 1,180천 가구에서 2017년 2,127천 가구로 꾸준히 증가[1]하고 있으며, 여성학·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한부모가족의 실태조사와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는 논의의 범주를 ‘미디어’로 확장해, 한부모가족 담론이 TV 다큐멘터리에서 재현되는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미디어는 사회의 반영, 재현, 상호작용의 영향력이 큰 매체로, 현 사회의 지배담론을 가장 명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텍스트이다. 또한, 담론의 재생산뿐만 아니라 새로운 논의 지점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담론들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의미 실천의 장(場)으로 기능한다. 과거 미디어는 주로 정상가족 신화에 기반한 이상적 가족-부부와 미혼자녀-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한편, 이들 형태에서 이탈한 가족들은 불완전하고 결핍된 집단으로 사회 주변부에 위치시켜왔다. 즉, 다양한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목격되고, 정상가족 신화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제기되에도 불구하고, 대중매체는 끊임없이 가족에 대한 지배적인 이미지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 이 연구는 오늘날 TV 다큐멘터리가 어떠한 담론 속에서 한부모가족을 재현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싱글대디와 미혼모 이야기를 동시에 다룬 KBS1의 다큐 공감 <아이가 행복입니다>(2015)의 서사구조 분석을 진행한다.

다큐멘터리는 장르의 특성상 현실(reality)과 유비 관계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에 오랜 시간 진실의 도구[3] 혹은 사실의 전달자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다큐멘터리 역시 ‘누군가’의 관점에서 기술적·미학적 창조성이 가미된 영상물이라는 점에서, 구현된 리얼리티는 필연적으로

이데올로기적[4]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다큐멘터리의 핵심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의 현실 세계의 재현 문제[5]인바, 다큐멘터리는 그 창조적 표현을 들춰낼 수 있다면, 특정 담론의 의미 생산 과정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르가 된다. 이러한 매체의 특성과 장르적 성격 및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큐멘터리는 한부모가족의 재현과 담론의 변화 여부를 진단하고자 하는 본고의 연구목적에 적합한 연구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텍스트 속 인물 간의 관계와 이야기 구조에 초점을 맞춘 서사분석을 통해 젠더에 따른 한부모가족 담론의 재현 방식의 차이를 확인하고, 텍스트 전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치적 함의를 논의한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해당 다큐멘터리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기존 이미지들의 수렴을 통해 지배 가치를 재생산하는지, 혹은 정상가족 담론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가를 검토한다. 이러한 연구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의 요구와 고정관념을 확인하고, 정상가족 담론의 균열 가능성을 포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II. 이론적 배경

1. 정상가족 신화와 한부모가족 담론

“정상 가족(normal family)”이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전형적·정상적인 가족이며, 여기에서 벗어난 가족들-무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동성결혼가족 등-은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입장이다. 이때, 핵가족은 애정에 기반한 부부 중심의 생물학적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계부양자인 남성과 가사노동 및 정서적 기능을 담당하는 여성의 성별분업이라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구성되는, 공동체의 기본 단위가자 자연스럽고 불변하는 사회 제도로 인식되었다[6].

그러나 정상가족 신화는 이론과 현실의 두 차원에서 그 한계를 드러낸다. 첫 번째는 가족의 형태적 가변성으로, 정상가족의 전형인 핵가족은 단지 이념적 구성일 뿐, 가족의 형태는 역사적 흐름과 사회문화적 배경, 개인 생애주기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왔기 때문이다[7][8]. 실

1 ‘미혼모’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의 어머니’란 의미로 ‘혼인’범주 안에 있는 어머니만이 정당하다는 인식[2]을 암묵적으로 부여하는 단어이다. 이는 이성애적 혈연관계로 탄생한 가족 이외의 결합은 배제하고, 부계 중심 가족 안의 어머니만이 유일하게 인정받은 존재라는 사회적 통념과 긴밀히 연결된다. 최근에는 보다 가치중립적인 ‘싱글맘’ 혹은 ‘비혼모’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분석대상인 다큐멘터리가 ‘미혼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에 이를 그대로 차용한다.

제로, 2000년을 기점으로 국내 핵가족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2015년 기준, 전체 혈연가족의 과반을 넘지 않는다는 통계 자료가 이를 뒷받침한다[9]. 두 번째는 가족 내부의 불완전성으로, 사회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안식처로서의 (핵)가족이, 실상 폭력과 불평등의 공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사례로, 2014년을 기준으로 맞벌이가구 내 가사노동 시간의 비율이 여성이 남성의 약 5배라는 사실[10]은, 가족의 공동체성이 구성원 중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유지되어 왔음을 보여준다[11].

결국, 성별분업을 토대로 한 근대 핵가족은 가족 내 노동과 자원, 권력 관계의 불평등을 강화·지속함으로써, 정상가족 신화는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재생산[12]하고, 남성 중심의 권력 구조를 유지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기에 오늘날 가족은 고정된 실체 아닌,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열린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13].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할 수 있는 비 전형 가족의 형태 중 하나가 바로 '한부모가족'이다.

한부모가족이란 부 혹은 모와 그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 국내의 한부모가족 연구는 가구 실태와 정책지원, 구성원들의 정서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정책 지원의 경우, 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편견과 생활고라는 이중 부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가운데, 한부모가족 실태 연구의 상당부분이 미혼모에 초점을 맞추고, 부자가족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합법적 결혼제도 속 임신과 출산만이 정당하다는 우리 사회의 통념은, 미혼모를 사회적 조건의 피해자로, 이들 가족은 결핍된 가족으로 이해하게 하고, 이로 인해 모자가족이 처한 사회적 조건의 복잡성과 행위성은 삭제된다. 즉, 전형적 약자로 미혼모를 인식하는 학문적 관점은, 이들의 임신 상황에 대한 대응이나 저항 등 주체의 행위성을 간과하게 하는 것이다[14].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여성학적 시각에서 진행된 연구는 미혼모의 주체성을 드러내거나[15], 이들의 섹슈얼리티가 비가시화 되고 억압받아왔던 역사적 맥락과 미혼모의 사회적 재현 양상의 변화를 분석하기도 한다[16][17].

부자가족 연구의 부재는 양육의 주체가 '여성'이라는

전통적 모성 이데올로기와 돌봄 위탁의 상대적인 용이함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특히, '미혼부'에게는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긍정적 부성의 이미지가 부여됨으로써, 상대적으로 한부모 여성보다 문제적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²

선행연구를 미루어 볼 때, 앞으로의 한부모가족 연구는 현황 파악 이상으로 여러 학문적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다양한 분석대상을 바탕으로 젠더와 계급 요소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연구대상을 미디어로 확장해, 다큐멘터리에 투영된 한부모가족 담론을 고찰하고자 한다.

2. 미디어의 한부모가족 재현 연구

우리 사회에서 미디어는 사회적 파급력과 더불어, 현실 반영과 재현, 재구성된 담론을 유포하는 장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디어의 재현 연구는 단순히 텍스트 분석의 의미 이상으로, 이에 개입하는 여러 요소들의 권력 관계를 확인하고, 이들의 관계를 통해 총체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파악하는 유용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 미디어 속 한부모가족 재현을 분석한 연구들은 소수이며, 이들 중 한 편의 연구만이 싱글대디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미혼모와 싱글대디가 동시에 등장하는 영화 <과속 스캔들>의 분석[19]은 코미디 장르를 활용해 미혼모·싱글대디의 문제가 '의사' 혹은 '유사'통합의 모습으로 갑작스레 봉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극적인 '단란한 가정'의 형성을 통해, 영화는 사회 규범에 부합하는 '비-전형 가족'의 모습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부모가족 묘사에 대한 양가적인 해석은 드라마 속 미혼모의 모습[20]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대상 드라마들은 가부장제에서 자발적으로 이탈한 미혼모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이들에 대한 긍정적 묘사와 공적영역에서의 활약, 여성 인물들의 생산적 연대를 제시하며 가부장제 균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탈권위적 남성 인물의 등장으로 더욱 공고

² 부자가족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룬 국내 논문[18]이 존재하지만, 이는 담론분석이 아닌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를 분석한 연구이다.

해진 낭만적 사랑 담론과 미혼모의 구조적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서사는 역으로 탈 가부장제의 환상을 강조하게 된다.

장르적 특성상 다큐멘터리의 리얼리티 구현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뉴스[21]에서도, 미혼모를 묘사하는 뉴스 관행은 지난 10년(2000년과 2010년 초반) 동안 극히 일부만이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미혼모 문제’ ‘이’ 프레임은 제외한, ‘범죄자 프레임’, ‘피해자 프레임’, ‘사회적 책임 프레임’, ‘주체적 프레임’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주체적 프레임의 양적인 증가와 여타 다른 프레임의 유지가 동시에 목격되는 것은 가부장제의 이탈과 종속 프레임의 공존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디어 속 가부장제의 균열과 포섭의 양상은 비단 ‘한부모가족’에만 국한된 담론이라 볼 수 없다. 최근의 가족 재현 연구들[22-24]은 드라마가 가족 내 성역할과 변화된 젠더 의식, 가부장제로부터의 이탈 등 소재의 측면에서는 정상가족의 전형성에서 탈피하고 있지만, 이들이 결국 가부장제가 이상적으로 제시하는 결론-분열된 가족의 봉합과 이성애 결합 등-에 도달함으로써 지배 질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종합하면, 미디어 속 정상가족 담론의 균열과 포섭은 동시에 목격되고 있으며, 이는 한부모가족 재현을 넘어 가족 담론 전반에서 포착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미디어의 한부모가족 재현 연구는 양적으로 부족하며, 이 가운데에서도 싱글대디-비혼부의 연구는 부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미혼모와 싱글대디를 동시에 등장시킨 다큐멘터리의 서사분석을 통해, 미디어가 젠더의 차이에 따라 이들을 어떻게 재현하는지, 더불어 정상가족 담론의 균열과 포섭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고찰하도록 한다.

III.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미디어 속 한부모가족 담론의 재현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TV 다큐멘터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다큐멘터리는 사실과 허구의 경계 속에서도 타 장르

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전달하기에, 현대 사회 특정 담론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2015년 10월 31일, KBS1의 다큐 공감에서 방영된 <아이가 행복입니다>의 서사구조 분석을 진행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을 재고하고 아이 키우는 행복에 대해서 조명”하기 위해 미혼모 김도경씨와 싱글 대디 이종욱씨의 이야기를 다룬다.

이 연구가 단일 다큐멘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으로 위 텍스트를 선정한 근거는 장르적 중립성과 이에 따른 분석의 객관성 확보에서 기인한다. 현재 공중파 3사(EBS 제외)에서 방영 중인 다큐멘터리 중 한부모가족이 등장한 휴먼 다큐멘터리는 KBS1의 <다큐 공감>, <인간극장>, <동행>과 MBC의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과 <MBC 다큐 스페셜>이다.³

이들 중, <MBC 다큐 스페셜>의 텍스트는 연구의 시의성을 고려해⁴, 시청자 후원 유도의 성격이 강한 <동행>과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은 서사와 등장인물의 편향성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유사하게, <인간극장>은 주제상 극적인 ‘인간드라마’와 ‘불우한 환경극’에 중점[25]을 두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싱글대디 담론은 부재하거나 전술한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등장인물의 특수한 상황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종합하면, <동행>과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 <인간극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미혼모 가족의 문제적 상황에 집중하는 가운데, 프로그램의 제작의도에 따라 특정 가족에 대한 관심유도를 위한 감정적 서사로 구성된다. 또한, 싱글대디는 부재하는 젠더적 편향성이 두드러지게 목격되기에, 연구자의 작위적 추출에 따른 동일선상에서의 비교는 역설적으로 분석결과와 왜곡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다. 결국, 세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은 젠더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현 차이와 이에서 기인하는 기존 정상가족 담론의 대안 제시 여부를 확인하고자하는

3 본고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송영상산업백서(2017)>를 토대로 현재 방영 중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목록을 확보했으며, 구체적인 연구대상 선정은 각 방송사의 인터넷 아카이브를 활용했다.

4 <MBC 다큐 스페셜>의 유일한 한부모가족 이야기인 ‘혼자라도 괜찮아? - 싱글맘, 싱글대디 분투기’는 2007년 1월 7일에 방영됐다.

본고의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다큐멘터리는 미혼모와 싱글대디 담론을 동시에 다룬 유일한 프로그램으로, 한부모가족 담론뿐만 아니라 젠더에 따른 재현의 차이와 이에 기반한 정상가족 신화의 균열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는 텍스트인바, 본고의 연구목적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2. 분석방법

본고는 다큐멘터리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서사구조 분석을 채택한다. 서사분석이란, 특정한 서사를 담고 있는 텍스트의 다양한 층위에 구조적으로 접근해, 이야기의 구성요소와 이에 함축된 담론 및 정치적 함의를 효과적이고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해석 틀이다.

구체적으로, 서사(narrative)란 ‘누구에게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야기(story)와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되었는가’라는 서술방식인 담화(discourse)의 두 차원으로 구성된다[26]. 이때 이야기는 다시, 서사를 이끌고 가는 주체인 ‘인물’과 행위가 발생하는 구체적·상징적 시간과 공간, 사회적 환경인 ‘배경’의 특성을 파악하는 계열체(paradigm) 분석과, 연속적인 사건의 전개 과정을 파악하는 통합체(syntagma) 분석으로 나뉘게 된다. 한편, 담화는 서술자 유형, 서술자 위계구조, 시점 등을 포괄하는 ‘언어 표현방식’과 미장센, 카메라 기법, 조명 편집 등을 일컫는 ‘영상 표현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정형화 된 형식을 활용하고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휴먼 다큐멘터리의 장르적 특성을 고려해, 이야기 분석-통합체에 방점을 두고, 담화의 경우는 두 가족의 이야기를 따로 다루지 않고 공통적인 부분을 포괄적으로 언급하도록 한다. 이에 첫 번째, 계열체 분석에서는 다큐멘터리 등장인물들의 특징과 이들 간 관계 맺는 방식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프로그램이 구현하고 강조하고 자하는 한부모 역할에 대해 확인한다.

두 번째, 통합체 분석은 시퀀스 분석[27]을 적용해 이야기 구조를 파악하도록 한다. 시퀀스 분석은 플롯을 지닌 서사가 진행되는 전체적인 과정과 함축적인 이야기 구조를 파악하는데 적합한 방식이다. 이에 근거해 하나

의 프로그램 속, 두 가족의 이야기를 각각 분석하고 이의 비교를 통해, 텍스트의 근간을 이루는 지배담론과 중심 가치를 포착한다. 담화 또한, 두 가족의 이야기를 따로 다루지 않고 공통적인 부분을 포괄적으로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앞선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당 텍스트의 정치적 함의를 논의한다.

IV. 분석결과

1. 계열체 분석: 등장인물의 특징과 관계

다큐멘터리 <아이가 행복입니다>는 전반부는 싱글대디 이종욱씨의 이야기로, 후반부는 미혼모 김도경씨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싱글대디 이종욱씨는 이혼 후 제약회사를 그만두고 부모님의 집으로 내려가 우유배달을 하면서 두 남매를 키우고 있다. 그가 해당 직업을 선택한 것은 이외의 시간에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해주기 위함이며, 실제로 그는 생활 전반에서 아이들을 챙기고 학부모 활동에도 열심히 참가하는 등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다스러운 아줌마’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그의 가족들은 이종욱씨가 아내 없이 ‘엄마’의 역할까지 하는 것에 안타까워하며 재혼을 권하지만, 그는 자녀들을 생각하며 거절한다. 그의 가장 큰 고민은 사춘기 아들과의 소통 문제, 아이들에게 있어 어머니의 부재와 역설적으로 자신이 어머니 노릇을 수행함으로써 겪을 수 있는 ‘아버지 역할’의 부족함에 대한 것이다.

미혼모 김도경씨는 인터넷 여행사 대표로 결혼을 약속한 남성과의 이별 후, 자발적으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한 여성이다. 현재 자신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야간 대학을 다니며 강의도 하는 등 비교적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인물이지만, ‘어머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김도경씨에게 일은 “아이와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막이”기에, 그녀는 사회생활에 더 많은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한편, 김도경씨는 미혼모 모임에 주기적으로 참석하거나 ‘싱글맘의 날’ 행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등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

해 고군분투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아버지의 부재, 이를 자녀에게 설명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미혼모와 싱글대디를 묘사하고 그들의 역할을 제시하는데 있어 공통점과 차이를 보인다. 먼저 이들 가정은 스스로를 결핍된 가족으로 인식하고, 끊임없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분리하며, 다른 성별 부모의 부재와 보완을 자신들의 궁극적인 책임으로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일한 부재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종욱씨는 어머니의 역할까지 모두 수행한다면, 김도경씨는 그것조차 완수하지 못해 아이에게 죄책감을 가지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에 이종욱씨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지향적인 모습이, 김도경씨는 사회지향적인 미혼모의 이미지가 부여된다. 주변 가족의 반응 또한 한부모 남성에게는 재혼을 통해 '정상가족의 복원'을 희망한다면, 미혼모에게는 '능력 있고 독립적인 여성'이라는 이상을 투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다큐멘터리가 두 부모와 자녀 간 관계를 제시하는 방식은 사회에서 한부모가족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프레임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요구하는 이상적인 역할과 성별에서 비롯된 차이 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 통합체 분석: 시퀀스 분석

2.1 아빠는 해결사: 싱글대디 이종욱씨

싱글대디 이종욱씨의 이야기는 토도로프의 '균형-불균형(부모로서의 역할 갈등과 첫째와의 소통)-균형회복(캠핑과 가족사진 촬영)'의 서사구조를 따르는 총 여섯 개의 시퀀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인공이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인터뷰 장면들이 다수 삽입되어 있다.

시퀀스1과 2에서는 이종욱씨가 아버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숙련된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돌보는 장면들이 큰 갈등 없이 제시된다. 이때,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들의 인터뷰는 그의 섬세함과 '역척스러운 아줌마'의 면모를 강조해주지만, 부모님의 인터뷰는 남자가 아내 없이 엄마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시퀀스3에서는 첫째 아이와의 갈등과 함께,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주인공의 인터뷰가 제시된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시퀀스4(캠핑에서의 아이와의 대화)와 5(추석에 아빠를 위로하는 아이들)에 걸쳐서 해결된다. 시퀀스5에서도 친척들은 이종욱씨를 안타까워 하지만(갈등), 그는 아이들과의 관계의 중요성과 싱글대디의 장점으로 이에 대응하며, 이야기는 자녀들과 함께 가족사진을 촬영하는 것(시퀀스 6)으로 마무리된다. '사진 촬영'은 김도경씨의 이야기에서도 제시되는 장면으로, 이들이 또 다른 가족의 형태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하면, 이종욱씨의 에피소드는 전형적인 갈등해결의 서사구조 아래, 어머니로서의 역할 수행 및 아이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 있다.

2.2 엄마는 오늘도 달린다: 미혼모 김도경씨

미혼모 김도경씨의 이야기는 앞선 이종욱씨와 다르게, 불균형 상태에서 시작해 명확한 갈등이나 해소의 계기가 제시되지 않은 채 열린 결말로 끝을 맺는다. 에피소드 전반에서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현 사회에서 미혼모로 살아가는데 겪는 어려움과 편견, 이에서 비롯된 어머니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내적 갈등이 강조된다. 또한, 사회적으로 성공한 미혼모로 자신을 정체화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갈등의 해결책이 아닌, 불안정한 삶의 연장선으로 묘사되며, 이야기는 마지막 시퀀스의 '마라톤'과 '가족 사진 촬영'으로 급격하게 종결된다.

시퀀스1은 빠르게 사회생활을 하는 김도경씨의 모습이 주를 이루며, 미혼모를 선택하게 된 계기와 고충을 설명하는 그녀의 인터뷰는 현재의 상황을 강조하는 장면으로 삽입된다. 두 번째 시퀀스에서도 불안정한 상태와 고민, 엄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은 계속된다. 그러나 미혼모의 삶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자랑스러워하는 가족들의 반응은 앞선 이종욱씨 가족들과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시퀀스3과 4에서는 정기적으로 미혼모 모임에 참석하며 관련 행사를 준비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부각된다. 이는 그녀가 미혼모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며, 내적 갈등과 사회와의 대립구도 속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선진국의 정책을 설명하는 전문가의 인터뷰 삽입은 우리사회에서 미혼모 문제가 단지 개인에

계만 국한된 것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제도와 지원이 필요한 현상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시퀀스 5(아이와 장을 봄)와 6(마라톤 참여와 가족사진 촬영)은 다시 개인의 이야기로 돌아가, 아이와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김도경씨의 모습을 제시한다. 이때 여성 사회자의 내레이션과 도경씨의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은, 보통의 '어머니'의 삶 대신, 사회적으로 성공한 모습으로 아이에게 자신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는 주인공의 다짐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김도경씨의 이야기는 미혼모로서 혹은 어머니로서 겪어야 하는 그녀의 내외부적 갈등에 주목한다. 또한 불균형의 상태(워킹맘으로서의 바쁜 삶과 어머니 역할의 부재)에서 시작된 그녀의 이야기는 명확한 해결책 없이 개인의 능력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로 마무리되며, 마지막 장면(장보기, 마라톤, 가족사진)은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과 같은 환상을 부여한다. 물론, 전문가의 인터뷰는 미혼모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을 보여주지만, 이는 부분적인 언급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보기 어렵다.

3. 정치적 함의

분석대상 다큐멘터리는 기본적으로 한부모가족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두 가정의 각기 다른 문제 상황과 해결방안의 제시는, 다큐멘터리가 재현하는 담론의 의미가 양가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인 정치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3.1 한부모가족의 등장과 긍정적 묘사

해당 다큐멘터리는 두 유형의 한부모가족을 등장시키고 있다. 이들 주인공은 공통적으로 '정상가족' 담론에서 자발적으로 이탈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또한, 다큐멘터리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두 가족이 겪을 수 있는 현실적 문제와 고민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며, 미혼모 김도경씨의 경우, 개인사를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시도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 프로그램들이 한부모가족을 사회의 실패자나 피해자로 주변부에 위치시켰던 것과는 일견 상반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미디어에 부재했던 '싱글대디'를

가시화하고, '표면적으로' 전환된 이분법적 성역할을 묘사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한부모 가족의 등장과 이들에 대한 긍정적 묘사는 변화한 사회 질서를 반영하는 것이며, '가족사진 촬영'의 상징적 의미는 적어도 미디어가 이들을 하나의 "가족" 형태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처럼,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의 제고와 긍정적 인식전환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은, 충돌하는 담론 간 정치적 논의의 장으로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와도 연결될 것이다.

3.2 두 가족의 비대칭적 묘사와 결손 가족(broken family)으로서 한부모가족

연구대상 프로그램은 두 가족 모두를 정상가족의 기능과 구성원이 '결여된' 것으로 묘사하며, 이때 그 부족함의 정도는 각기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싱글대디 이종욱씨의 경우,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직업으로 이직을 하는 등 생계부양과 돌봄의 역할을 충족시키고자 노력한다. 물론, 어머니 노릇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아버지 역할'에 부족함을 느끼지만, 이는 '캠핑'이라는 수단을 통해 보완한다.⁵ 그러나 미혼모 김도경씨는 사회적·직업적으로는 활발히 활동하지만, 생물학적 여성이기에 아버지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며, 어머니의 노릇 역시 완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비대칭은 두 주인공을 가리키는 용어-중립적이면서 현대적인 뉘앙스의 '싱글대디'와 제도권으로부터의 이탈과 사회적 편견을 의미하는 '미혼모'의 사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결핍된 상황과 용어의 차이는 모자가정을 더욱 문제시하는 것으로, 이는 맥락에 따라 양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불완전한 모자가정의 재현은 전형적인 편견의 재생산일 수 있지만, 실제 현실의 반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주인공들의 인터

5 일반적으로 캠핑문화에는 남성성과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다. 캠핑 장비를 설치하고 운반하기 위한 체력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존재로서, 그리고 자연 속에서 신체적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존재로서 남성이 필요하다는 고정관념이 이에 동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캠핑문화는 남성이 부재한 가족을 배제시키는 정상가족 신화를 작동시키기도 한다[28].

부와 두 인물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재혼을 권하는 주변인들의 발언은, 궁극적으로 프로그램이 두 가정 모두를 단일한 가족의 정상성에 기대어 “결손가족”으로 정체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3 이분법적 성역할 재현을 통한 정상가족 신화의 강화

다큐멘터리는 싱글대디를 가족지향적으로, 미혼모는 사회지향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실제로, 이종욱씨는 전형적으로 ‘어머니의 책임’으로 부여됐던 과업-가사일, 돌봄, 학교 참관 등-을 수행하는 모습에, 김도경씨는 대외적인 사회 활동에 많은 장면이 할애되고 있다. 그러나 일견, 전복된 성역할을 보여주는 듯한 구성 속에서, 서사는 끊임없이 성별에 따른 부모의 역할을 분리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등장인물과 주변인들은 아이를 위해 요리하고 숙제를 챙기는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어머니의 역할로, 생계부양과 캠핑, 마라톤과 같은 야외 활동을 아버지의 역할로 이야기하고, 다른 성별 부모의 부재를 보완하는 것이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분법적 성역할의 재현은 결국, 이를 기반으로 유지되는 정상가족 신화를 강화하는 간접적 요소로써 기능한다.

3.4 개인의 영역으로 소급되는 한부모가족 문제

해당 프로그램의 서사구조는 일정부분 사회적 차원에서 제도 및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가족 문제를 개인의 영역으로 축소하고 있다. 개인이 처한 환경과 관계없이, 두 주인공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를 위한 삶을 살겠다는 강한 의지와 책임감을 여러 번 피력하며, 내레이션 또한 자녀를 위한 두 부모의 희생을 숭고하고 긍정적인 행위로 표현한다. 이처럼 ‘개인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 프레임은 통해, 이들이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삭제되고, 사안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국한된다. 물론, 김도경씨의 에피소드에는 주인공이 미혼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진국의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인터뷰 장면이 제시되는 등 해당 사안을 거시적 차원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전술했듯, 서사구조 상 이러한 시도들이 실질

적인 해결책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역으로, 한부모 남성의 현실적 문제는 개인의 선택과 책임으로 전가하는 비대칭적 묘사인바, 텍스트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3.5 다큐멘터리의 담화적 특징

연구대상 프로그램 속 인물의 심경과 생각을 직접 전달하는 인터뷰와 주어진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부드럽고 다정한 어조의 여성 내레이션은, 외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다큐멘터리 시네마의 장르적 특성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영상의 ‘진실성’을 강조한다. 각 에피소드에는 부모의 희생을 정당화하고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함을 역설하는 내레이션과 자신의 부족함과 개인적인 극복 의지를 드러내는 주인공의 인터뷰가 보이스 오버로 삽입되고 있다. 이는 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표현·강조하는 것으로, 결국 왜곡된 한부모가족 담론을 (재)생산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한다.

V. 결론: 변형된 정상가족 담론의 재생산과 한부모가족의 포섭

대중매체는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들을 담아내는 역동적인 텍스트로 기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다큐멘터리 속 한부모가족 담론의 재현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담론이 정상가족 신화와 교차점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변형되었는가를 밝히고자 했다.

KBS1 다큐 공감 <아이가 행복입니다>는 주류 매체의 주변부에 위치해 온 한부모가족을 텍스트의 중심에 등장시키고 있다. 소위 “정상가족”에서 자발적으로 이탈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는 싱글대디 이종욱씨와 미혼모 김도경씨의 모습은 한부모가족을 사회의 실패자나 피해자로만 다루던 기존의 재현과는 상반된 시도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비가시화 됐던 싱글대디를 전면으로 등장시키고, 대외적으로 성공한 미혼모를 묘사한 것 또한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이 일정부분 정상가족 신화의 균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 다큐멘터리는 한부모가족을 정상가족의 구성원과 기능이 결여된 “결손가족”으로 정체화하고 있었다. 이때, ‘불완전’의 정도에 대한 두 가정의 비대칭적 묘사와 용어-싱글대디와 미혼모-의 사용은, 모자 가정에 대한 전형적인 고정관념의 생산 혹은 현실의 반영이라는 양가적 의미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아버지/어머니의 역할 수행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서사는 이분법적 성역할을 고착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프로그램은 이를 기반으로 유지되는 정상가족 신화를 벗어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사안을 개인의 능력 문제로 소급하는 내레이션과 인터뷰의 삽입,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는 미혼모의 서사 등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논의를 왜곡·축소시키고 있었다. 결국, 해당 다큐멘터리의 한부모가족 묘사는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변형된 정상가족 신화의 포섭을 통해 기존 담론을 재생산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다큐멘터리 결말부에 제시된 ‘가족사진 촬영’ 장면은 상징적이다. 가족사진은 ‘사진’보다는 ‘가족’에 방점이 있는, 완전한 가족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는 은유적 표현이다. 그렇기에 이는 다큐멘터리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서사일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 스스로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가족이 되길 바라는 상징적인 행위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바람의 근거에는, 지금까지 한부모가족을 ‘비정상 가족’으로 바라보았던 우리의 시선이 존재할 것이다.

사실상, 다큐멘터리의 변형된 정상가족 신화의 재생산은 현 사회의 새로운 담론의 부재에서 오는 근본적인 한계일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대중매체 속 한부모가족의 등장도 그 자체로도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담론이 나아갈 방향을 탐구하는 것이며, 이때 충돌하는 담론들을 지속적으로 재현하고 확장하는 것은 미디어의 몫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8, 2018.5.7.
- [2] 이원형, “싱글맘들의 유쾌한 질주’를 위하여,” 여/성이론, 제19호, pp.300-309, 2008.
- [3] 유현석, “다큐멘터리를 이해하는 방법: 진실과 리얼리티,” 사회과학연구, 제15권, 제1호, pp.83-101, 2009.
- [4] J. Fiske, *Television culture*(2nd ed.), London: New York: Routledge, 2011, 곽한주 역, 텔레비전 문화, 서울: 컬처북, 2017.
- [5] B. Nichols, *Introduction to Documentar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1, 이선화 역, 다큐멘터리 입문, 파주: 한울, 2005.
- [6] 이박혜경,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결혼과 가족,” 한국여성연구소 지음, 새 여성학강의, 서울: 동녘, 1999.
- [7] 이재경, *가족의 이름으로: 한국 근대가족과 페미니즘*, 서울: 또하나의문화, 2003.
- [8] K. Gerson, *The Unfinished Revolution: Coming of Age in a New Era of Gender, Work, and Famil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9]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6, 2018.5.7.
- [10] http://index.go.kr/potal/visual/VisualDtlPageDetail.do?idx_cd=3027, 2018.5.7.
- [11] 김혜경, “가족, 허물기와 다시 쌓기,” 한국여성연구소 지음, 새 여성학 강의: 한국사회, 여성, 젠더, 파주: 동녘, 2005.
- [12] 이재경, *가족의 이름으로: 한국 근대가족과 페미니즘*, 서울: 또하나의문화, 2003.
- [13] 이박혜경,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결혼과 가족,” 한국여성연구소 지음, 새 여성학강의, 서울: 동녘, 1999.
- [14] 서정애, “십대미혼모의 임신경험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 pp.281-208, 2009.
- [15] 김혜영, “십대 청소년 미혼모의 출산 및 양육경험-주체와 타자의 경계에서,” 한국여성학, 제26권, 제4호, pp.101-131, 2010.

- [16] 권희정, “입양실천에서 나타나는 정상가족 담론과 미혼모 자녀의 ‘고아’ 만들기,” 페미니즘 연구, 제15권, 제1호, pp.51-98, 2015.
- [17] 신필식, “1970년대 신문기사를 통해 본 한국 미혼모 보호사업과 미혼모의 사회적 재현 변화 연구,” 한국여성학, 제33권, 제4호, pp.323-357, 2017.
- [18] 문은영, “서울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본 부자가족의 현황과 문제점,” 공공사회연구, 제1권, 제2호, pp.135-174, 2011.
- [19] 이주연, “드러난 웃음 속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과속 스캔들>에 대한 독해,” 씨네포럼, 제11호, pp.167-183, 2010.
- [20] 김환희, 이소윤, 김훈순, “TV드라마와 젠더담론의 균열과 포섭: 이혼녀와 미혼모의 재현,” 미디어, 젠더&문화, 제30권, 제3호, pp.5-40, 2015.
- [21] 김경희, “뉴스 구성 관행과 고정관념의 재생산-텔레비전 뉴스의 미혼모 보도 사례 분석,” 미디어, 젠더&문화, 제30권, 제1호, pp.5-45, 2015.
- [22] 최현주, “텔레비전 드라마에 묘사된 성역할의 전도(reverse)와 그 함의: 남성 전업주부 드라마 <불량주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2권, 제4호, pp.401-438, 2008.
- [23] 김선영, “한국 가족의 현실: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 이슈 - TV 드라마 <엄마가 빨났다>가 선택한 가족 이슈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5권, 제2호, pp.161-192, 2009.
- [24] 김지영, 김동규, “TV 드라마가 재현하는 ‘혼외관계’-전통적 가족주의와 현대적 욕망의 충돌- 1990년대 이후 지상파 TV 드라마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이론, 제13권, 제1호, pp.44-93, 2017.
- [25] 이은실, *TV 휴먼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특성에 관한 연구: KBS2 <인간극장>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26] S. Chatman, *Story and Discourse: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78, 김경수 역,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서울: 믿음사, 1990.
- [27] T. Todorov, *The poetics of prose*, R. Howard

Tran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7.

- [28] 박정은, 이훈, “캠핑은 어떤 가족을 위한 것인가-캠핑에 관한 미디어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관광학 연구, 제39권, 제4호, pp.95-112, 2015.

저 자 소 개

김 환 희(Hwan-Hee Kim)

정회원



- 201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문학사)
- 2014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과(언론학석사)
- 2015년 3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박사

사수료

<관심분야> : 영상·문화 커뮤니케이션, 문화연구, 방송 영상미디어 콘텐츠, 페미니즘과 가족 담론

고 병 진(Byoung-Jin Goh)

정회원



- 201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문학사)
- 201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문학석사)

<관심분야> : 온라인 공론장, 페미니스트 정치, 사이버 성폭력, 방송영상미디어 콘텐츠